

# CBSmission

CBS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CBS는 세상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입니다.

발행 CBS기독교 방송 | 주소 158-071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1 | 발행인 이재천 | 2010년 9월 | 전화 02)2650-7000

www.cbs.co.kr



SINCE 1980  
새롭게 하소서 30년

## 1만명 간증... 세상을 바꾸다

### 한국 최장수 간증프로그램 우뚝

● 미국 캐나다 남미 중국 일본서도 큰 인기  
1980년 9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2010년 9월 현재 30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 CBS '새롭게 하소서'.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해 2002년 CBS TV 개국과 더불어 국내는 물론, 미국 캐나다 남미 중국 일본 등 전 세계로 방송 영역을 넓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새롭게 하소서'는 CBS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30년의 세월이 말해주듯 진행자만 하더라도 고은아 권사와 작고한 고 광규석(후라이보이)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해 탤런트 정애리 권사, 송채환 집사, 오미희 집사 그리고 최일

도 목사, 김학중 목사, 송재호 장로, 송정미 사모 등 한국기독교를 대표하는 많은 진행자를 거쳐 현재 임동진 목사와 고은아 권사가 진행하고 있다. 9000회라는 놀라운 방송횟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새롭게하소서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나눈 출연자 또한 1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 ● 3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간증

하나님께서 이 땅과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 놀라운 역사와 고백이 '새롭게 하소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방지일 목사, 고 정진경 목사, 조용기 목사, 김삼환 목사, 김동호 목사 등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는 수많은 영적 리더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동의 메시지,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라는 위상에 맞게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2만명의 선교사들의 생생한 선교현장의 이야기, 화려한 이면에 감춰진 솔직한 고백을 통해 더 큰 감동을 줬던 연예계와 스포츠 스타들,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와 주님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은 탈북동포들과 다문화 가족들.

### ● 천만 성도의 사랑속 어두운 그늘에 새로운 빛

놀라운 '새롭게 하소서'의 역사 속엔 오랫동안 함께 해온 아주 특별한 동역자가 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오지의 선교사들에게 전해지는 한국교회 천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이 30년을 이어올 수 있는 힘이였다. '새롭게 하소서' 30년. 오늘도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 임동진 목사(오른쪽)와 고은아 권사

결단이 일어나며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길 기대해본다. 누군가의 간증이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변화가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롭게 하소서'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 이재천 CBS 사장 인터뷰

"CBS의 주인, 한국교회를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이재천 CBS사장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키워드는 '섬김과 나눔, 사랑'이다. 이 사장은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한국교회에 다가간다. 이런 노력은 CBS와 한국교회의 소통과 공감, 협력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재천 사장은 별명이 '두 뚝'이다. 어린시절 다른 사람보다 일을 두 배로 한다고 해서 붙여졌다. 실제로 이재천 사장은 새벽부터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회사를 위해 필요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곧바로 달려가 만난다.

취임 2년째를 맞은 이 사장은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등에 CBS콘텐츠를 탑재한데 이어, 스마트 TV 등 뉴미디어 진출을 위해 뛰고 있다. 또 뉴스 전문 보도PP 허가 및 설립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 "한국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관계 크게 개선, 보도PP 의욕적 추진

### ● CBS가 보도PP (뉴스전문TV)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CBS는 선교와 언론의 두가지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수레의 두 바퀴와 마찬가지로. 그중에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믿어주는 뉴스가 바로 CBS뉴스다. 그래서 뉴스전문 채널을 만들어 '영상 뉴스콘텐츠'를 본격 제작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보도PP는 CBS가 한국교회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데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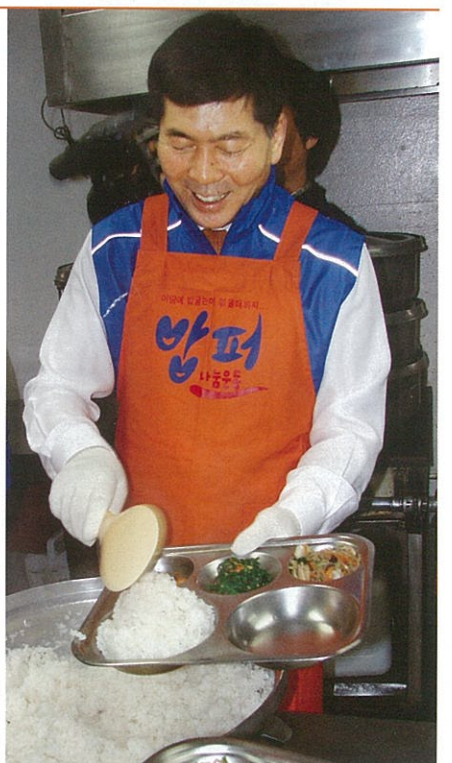
### ● CBS가 보도PP 허가를 받을 가능성과 보도PP의 사업성은?

"CBS는 보도 PP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전문 인력 - 네트워크 - 방송시설 - 시스템 - 제작 노하우 등을 다 갖추고 있다. CBS가 할때만 사업성도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 CBS의 대교회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교회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결같이 CBS가 교회와 더 가까워졌다고 말해 주신다. CBS TV의 시청률도 높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해줘서 고맙다는 목사님들이 많다. 앞으로 더 겸손히 섬기면, 하나님이 이어주고, 채워주실 것으로 믿는다. CBS는 전국 14개 네트워크에서 날마다 업무전에 직원예배를 드린다. 창사이후 하루도 쉬지 않았다. 또 직원 영성훈련을 실시하고, 특별 신앙강좌 등을 개최해 신앙에 기초한 언론인으로 무장시키고 있다."



밥퍼봉사를 하고 있는 이재천 사장.





# TV·라디오·인터넷·스마트폰 동시방송 “CBS 8·15대성회 전세계 생중계 최고였다”

고화질 HD중계·최첨단 장비 동원  
한국기독교방송사 새로운 기록수립

한국교회 8.15대성회가 사상최대 규모로 성공적으로 치러진데는 방송의 역할이 컸다. CBS는 한국교회 8.15대성회 방송중계 주관사로 선정되자, 완벽한 방송중계를 위해 기도하며 철저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대성회 장소가 서울시청 앞에 국한되지 않고, 승례문과 광화문까지 수십만 성도가 운집하게 돼 기술적인 고려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 60m대형 크레인 동원, 고화질의 Full HD 중계

CBS스텝들은 한국기독교사에 남는 대성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최고 화질의 Full HD중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매일 실무회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중계차와 대형크레인, 카메라 위치와 송수신거리까지 측정하며 꼼꼼하게 준비했다. 와이드한 집회의 현장감을 살



첨단장비가 동원된 8.15대성회 중계모습.

리기 위해 고심 끝에 60m 대형 크레인을 동원하고, 지미집 3대, 카메라 30여대가 배치됐다. 베테랑 PD등 최고의 제작인력 100여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문제는 3시간 길이의 장시간 중계방송 중 예상되는 돌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었다. CBS는 스튜디오와 현장의 이원방송 체제를 갖춰, 무사고, 무결점 방송을 실현했다. CBS TV중계는 스튜디오에서 정면이나 아나운서가 전체행동을, 서정오 목사가 해설



CBS TV 중계차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

을 맡도록 해 안정된 포맷으로 이뤄졌다. 수화방송과 자막처리까지 완벽한 화면이 각 방송사에 제공돼 '지상과 이상의 수준높은 중계방송'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라디오 중계도 서울시청광장 중계석에 장주희 아나운서 부장이 직접 MC로 나서고, 박재철 PD가 지휘를 맡아 한치의 오차없이 진행됐다.

● '최고의 중계방송' 찬사 쏟아져  
김삼환 목사는(한국교회 8.15대성회 대표



사상 최초의 스마트폰 현장중계.

대회장) "CBS가 중계방송, 평화음악회 하느니라 정말 수고했다. CBS가 최고다"며 CBS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8.15대성회 때 차세대 리더로 메시지를 전한 김학중 목사와 소강석 목사 등도 "CBS 중계 방송 수준이 최고였다. 더 크게 쓰임받는 CBS가 되길 바란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교회 8.15대성회 중계방송은 한국기독교사에 '전세계 다매체 동시 생중계'라는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 CBS TV, 스마트폰으로 본다

● CBS TV &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제작

CBS는 설교와 특강, 찬양예배 등 CBS TV의 주요 콘텐츠와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는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방송중계 중 소감이나 진행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와 연동해 올릴 수 있으며 매일 큐티 노트와 기도제목도 다른 성도들과 나눌 수 있다. CBS 라디오앱도 함께 설치되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 됐다.

● 사진/동영상 결합된 멀티미디어 성경 어플리케이션 개발

CBS는 그동안 자체 제작으로 확보한

방송 콘텐츠와 성지 순례를 통해 촬영한 각종 사진, 동영상, 성지에 관한 텍스트 자료를 활용해 성경의 문화적, 고고학적, 지리학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이 멀티미디어 성경 어플리케이션은 성경 본문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2천여곳의 성지, 박물관, 교회 등의 사진과 설명자료 동영상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성경 구절과 관련한 자료화면으로 링크되며 특정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성경의 문화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 성지를 구글 맵과 연동해 지도상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사진과 해설을 함께 보여준다.

## CBS라디오 '맛있는 교회사 이야기' '어려운 교회사' 쉽고 맛깔스럽게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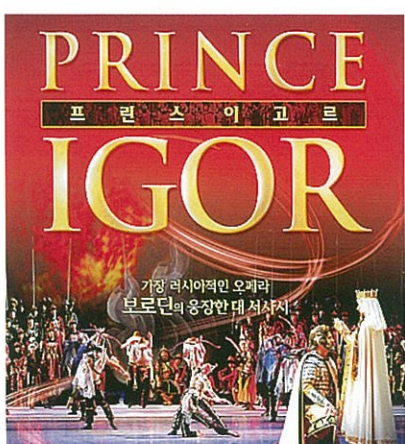
진행자 라은성 목사

매주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전국으로 방송되는 '맛있는 교회사 이야기' (진행 : 박명규 아나운서, 라은성 목사)가 전국 청취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너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신학교를 벗어나기 힘들었던 교회사를 쉽고 맛깔스런 설명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러한 청취자 반응에 대해 심영보 PD는 "시대가 변한 만큼, 성도들이 원하는 새로운 선교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예상외로 기독교 교리강좌에 대한 성도들의 욕구가 크다는 것도 알았다"고 밝혔다.

'맛있는 교회사 이야기'는 2천년 기독교 교회사 속에 이름을 남긴 신앙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면서 기독교 교회사의 맥을 잡고, 교회사 속에서 드러나는 기독교 신앙의 원형을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 CBS 명품공연 오페라 '프린스 이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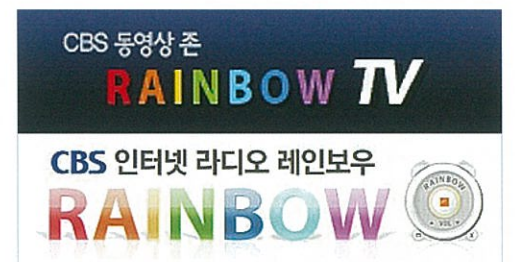
10월7~10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려

교회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속의 빛'을 추구해온 CBS는 그동안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마이클 W. 스미스와 스티븐 커티스 체프먼 내한 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조수미 초청음악회' '김동규 초청음악회' '호세카레라스 콘서트' '홍해경 콘서트' '신영옥 콘서트' 등 대형 클래식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클래식 대중문화로 세상과 만나는

공감지대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오페라 카르멘에 이어 올 10월7~10일 CBS 창사 56주년 한-러 수교 20주년 특별 기획, 러시아 정통 오페라 '프린스 이고르'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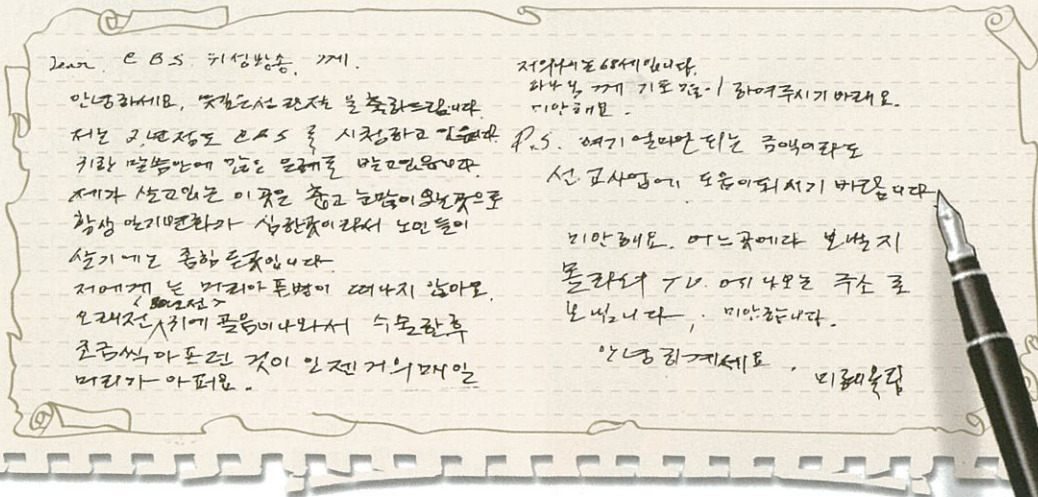
오페라단, 합창단, 발레단, 오케스트라 등 250명의 출연진이 대거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러시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에 애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CBS가 저를 살렸어요”

## ● CBS에 보내온 감사 서신



## CBS위성방송계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정도 CBS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안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이곳은 춥고 눈 많이 오는 곳으로 항상 일기변화가 심한 곳이라서 노인들이 살기에는 좀 힘든 곳입니다. 저에게는 머리아픈 병이 떠나지 않아요. 오래전(30년전) 귀가 많이 아파 수술한 후 조금씩 아프던 것이 이제 거의 매일 머리가 아파요. 저의 나이 68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요. PS. 여기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도 선교사업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북부지역인 위스콘신주 밀워키시에서 호프만 미혜 성도님>

## ● 前 산척중앙교회 선교 후원금 전달



충북 충주시 산척면에 소재한 前산척중앙교회 이응구 집사와 성도들이 교박 교박 모아온 벽돌헌금을 가장 귀한 곳에 쓰기로 결의. CBS전파를 통해 영혼 살리는데 사용하기로 정하고 방송국을 방문, 헌금 후 뿌듯해 하고 있다.

## ● 은혜와 감사의 CBS방송사역 후원

### “전도를 하고 싶는데 5급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 CBS가 나 대신 선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후원”

▷ 35년전 오스트리아 빈에 이민와서 살고 있다. 새 롭게 하소서 등 CBS방송을 보고 눈물 흘릴 때가 많다. <비엔나에서 한 성도>

▷ (눈물을 흘리시면서)오래전 허리를 다쳐 교회는 가지 못하고 있지만 늘 CBS를 시청하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다. 나에게 CBS가 교회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늘 감사하다. CBS의 방송 사역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강서구 방화동 한두엽 집사>

▷ 5급 언어 장애를 갖고 있어 직접 전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CBS가 나 대신에 선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다. CBS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변화를 받고 새 생명을 얻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 <강서구 가양동 이유 집사>

▷ 자식들이 주는 용돈과 목사님(남편)이 부흥회 인도로 받은 사례비 그리고 저희 부부가 절약한

돈을 모두 저축해서 CBS에 후원하게 됐는데 너무 기쁘다. <방배동 이00 사모>

▷ 2008년부터 CBS방송선교사로 참여해 후원하는 재미로 산다. 젊은 시절 어렵고 방향할 때 CBS를 시청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 그 사랑을 늘 잊지 않으려고 한다. <서울 서초동 흥영표 집사>

▷ 3년전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방송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 사랑하는 딸을 추억하며 딸의 생일마다 CBS방송에 후원하고 있다. <이00, 박00 권사>

▷ 큰 딸이 장애를 갖고 있고 말 안듣는 사고 뭉치이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리라 믿으며 늘 감사하며 산다. 방송을 통해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고 있다. <전남 장성군 영락양로원 문순심 권사>

## CBS 후원 방법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쓰여집니다.

- CBS선교후원 계좌  
우리은행 212-001999-13-045  
농협 358-17-000404
- ARS후원전화 : 060-808-0000
- CBS선교후원회 홈페이지 : love.cbs.co.kr
- 문의 : CBS 선교본부 02-2650-7950

특별모금생방송 | 2010년 10월28일(목)  
‘전세계 CBS보내기’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 무료 해외연수 11년째 지원

### ● 총 250여명에 18억원 장학혜택

CBS는 8월9일 서울 목동 CBS 본사에서 ‘2010년 하반기 뉴질랜드 선교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사진)’을 갖고 박동현군 등 25명에게 뉴질랜드 해외연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본 장학 사업은 농어촌 등 국내의 오지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실시해 왔다. 매년 두 차례씩 선발하여 현재까지 250여명의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선교에 비전이 있는 세례교인 이상의 대학생도 함께 선발하여 장학혜택을 주고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25명은 한화 700만원 상당(총 1억 7500만원)을 지원 받아 6개월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에딘버러 칼리지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박동현 군 등 선교장학생으로 선발된 25명은 선교의 열정을 품은 바른 신앙인들로 뉴질랜드 학교와 교회생활 속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생선교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 ● CBS 직원들 ‘섬김과 나눔’의 현장...



56년간 실시해온 전국 직원 아침 예배 | 전국 14개 네트워크 직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루 업무 시작.



이제천 시장을 비롯한 CBS 임직원들이 다일푸드뱅크에서 밥퍼봉사를 하고 있다.



2009 신입사원 제암리교회에서 영성훈련 | CBS는 지난 2000년부터 전직원들 상대로 영성훈련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달에도 간부사원 및 직원 5명 영성훈련 실시.



드림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들려 성금 전달.



출부모 모시는 가정과 독거 노인의 발이 되어온 CBS 교통통신원.

CBS 후원선교교회와 함께하는 중로중앙사회복지관 의왕드림프로젝트



# '복음의 빛' 전해준 일본에 '복음의 빛' 값는다



3월 나가사키현 아르카즈 사세보홀에서 열린 한·일 연합 선교대회.

## 0.3% 복음화율 일본에 부흥의 불씨 점화

**'순교의 땅' 나가사키서 CBS 한·일연합선교대회  
한일 목회자·성도·지도자 등 850여명 참석  
대회 실무 도운 공무원이 세례 받는 기적도**

CBS 한일연합 선교대회가 2010년 3월8일 일본 최초의 순교지인 나가사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의 목회자와 성도 450여명과 일본전역에서 모여든 400여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본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한일병합 100년이라는 아픈 역사를 딛고 세계선교의 최후로 보루로 남겨진 동북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땅끝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대회장 정성진(거룩한빛 광성교회)목사는 "오늘은 일본을, 내일은 한국을, 나아가 북한, 아시아, 아프리카를 복음화하자"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열정적인 한국인과 섬세한 일본인을 부르셨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일본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CBS가, 나가사키 순교의 역사에 대해 무관심했던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과 의의를 느낀다" (갈보리체플 오오카와 츠구미치목사). "대회의 준비 과정에서 다소 불안한 점도 있었지만, 결



말씀선포를 하고 있는 정성진 목사(왼쪽)

과적으로는 주님이 성공하게 해 주셨다. 해 냈다는 데에, 마음속으로부터 경의를 표한다"(일본복음동맹 이사장 나카지마 슈이치목사). "이번 대회의 취지에 대해서, 일본의 그리스도교계를 대표하는 세계의 그룹이 찬성해 주었다. 그것은 일본의 전교회가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본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다"(일본성서협회 와타베 마코토총주사) "CBS 스태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지켜보았다. 그때마다 일본목사로서 양심이 송곳으로 찢리는 느낌을 받았다"(요도바시교회 미네노 타츠히로목사) 등의 격려가 줄을 이었다.

그런데 대회기간 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수년전부터 CBS의 순교지 투어를 담당해 왔고 이번 대회 실무를 도왔던 사세보시의 한 공무원이 대회일정 마지막 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지난 260년간 처절한 박해로 공식30만명, 비공식 100만명이 순교한 일본에서는 지금도 기독교가 사교사되고 있음을 비취볼 때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를 지켜본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 아니겠냐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편, 두 차례의 한일연합선교대회에서 한-일간 25개 교회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난 5월에는 일본교회에 대한 측면지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CBS한일연합선교회가 발족돼 활동에 들어갔다.



세례를 받고 있는 사세보시 공무원

일본교계 19세기말 한글성경 번역 전폭 지원  
이제 일본에서 꺼져가는 신앙의 불씨 살리기

한국이 일본에 복음의 빛을 크게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9세기 말 조선의 학자 이수정은 고종의 배려로 일본유학을 간다. 거기서 복음을 받고 조선인 최초의 세례자가 된 후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는 '내 조국에도 선교사를 보내 달라'고 일본과 미국에 호소했고 일본교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한글성경 번역 작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1885년, 드디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의 조선 파송이 결정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격적으로 조선행을 택한 두 선교사는 오는 길에 일본에 들러 먼저 한국어어를 익힌 다음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그들 손에는 이미 한국어성경이 들려있었다.

선교사가 미전도 국가에 처음 들어가면서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갖고 가는 사례는 선교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 모든 역사 뒤에는 일본교계가 산파역할을 했던 것. 1954년 전쟁의 폐허위에 미국인선교사와 미국교회 헌금으로 설립된 CBS는 6년전부터 일본을 향해 복음의 빛 값는 일을 시작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황무한 땅! 일본은 지금 미국 교단마저 선교사를 철수시킬 만큼 초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 꺼져가는 복음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일로부터 일본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볼 때까지 한국교회의 복음의 빛 값는 계속될 것이다.



1883년 일본기독교선교대회(원 안)이 일본 목회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 등 MBA교육

과정 : 크리스천 지도자 최고경영자 과정  
개강 : 10월12일 / 매주 화요일 18:30-21:00  
기간 : 2010.10.12 - 2011.02.15 (16주)  
장소 : 롯데 호텔(소공동)  
문의 : 02-445-1949 (담당 정용달)

(재)CBS기독교방송(사장 이재천)이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장만기)과 공동으로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는 크리스천 CEO 및 임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최고 경영자 과정(Advanced Management Program)을 교육 할 예정이다. CBS와 인간개발연구원은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리더십, 문화, 커뮤니케이션,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개발 및 영성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크리스천 기업인과 고위관료, 저명인사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21세기 들어 경영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예수의 섬김의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탐구할 계획이다.

### CBS 세계 네트워크

TV 26개, 라디오 32개, IPTV 3개, 인터넷, 신문 등  
전세계 60여 개의 방송 및 언론사에 콘텐츠 공급

